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키움증권

## 미 증시, 기대 인플레 둔화에도, 미중 2차 협상 경계심리로 혼조세
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9일(월) 미국 증시는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(3.6% → 3.2%), 트럼프와 머스트의 관계 호전 기대감에 따른 테슬라(+4.6%) 강세 등 상방 요인 상존에도, 미중 2차 협상 결과 발표 지연, 5월 CPI 경계심리 등이 상단을 제약하며 혼조세 마감(다우 -0.0%, S&P500 +0.1%, 나스닥 +0.3%).

현재 런던에서 진행 중인 미중 2차 협상을 두고, 베센트 등 미국 진영 측에서는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.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,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제 완화가 핵심. 전일 마이크론(+2.2%)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(+2.0%)의 강세에는 이 같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. 다만, 이번 2차 고위급 협상이 양국간 관세 전쟁의 종료까지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, 추후에도 이들 간 후속 협상과 관련한 노이즈가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호조, 국내 신정부 정책 기대감 지속 등으로 외국인이 9,700억원대 대규모 순매수를 보인 영향에 힘입어 1%대 강세로 마감(코스피 +1.6%, 코스닥 +1.1%).

금일에도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안정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, 국내 정책 모멘텀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할 전망. 다만, 미중 2차 협상 경계심리, 코스피의 3거래일간 5.8% 급등에 따른 속도 부담 등이 장중 차익실현을 유발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

지금 코스피는 지난 6월 3일 대선 이후 연속 랠리를 전개하면서 2,850pt대에 진입. 차트 상 거래대금 증가가 수반된 일간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및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정배열이 형성됐다는 점도 특징적. 작년 상승장(1월말~7월 중순, 연고점 2,891pt) 이후 처음으로 정배열이 형성된 것이기에,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추세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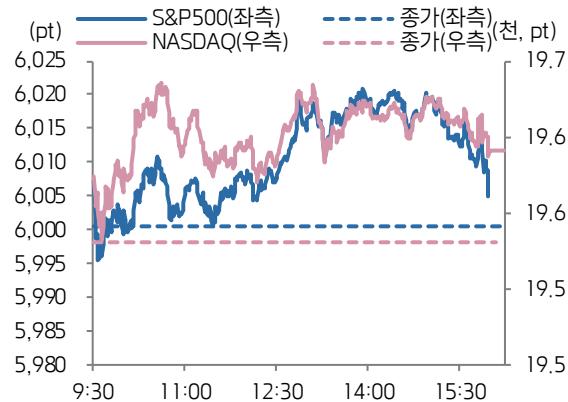
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주도 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띠는 부분. 아직 4거래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, 6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.1조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의 주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. 이 같은 외국인 바이코리아 배경은 원화 강세 전망에 따른 환 차익 베팅 이외에도, 지난 8월부터 4월까지 9개월 간 38조원 순매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수급 빈집이 된 영향이 크다고 판단.

실제로 6월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31.4%로 직전 바이코리아 장세(23년 11월~24년 7월)의 평균 지분율인 32.8%, 5년 평균 32.1%, 10년 평균 33.2%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.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충돌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, 6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 업종이 반도체(+1.6조원)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업종이 외국인 수급상 가장 큰 빈집이었기 때문.

또 작년 1~2월 밸류업 정책 발표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,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베텁하려는 성격도 일정부분 내재된 것으로 보임(작년 1~2월 밸류업 장세 당시 외국인은 두 달 동안 11.3조원 순매수를 기록). 이처럼 달러화 약세(원화 강세), 수급 빈집,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기대감 등 외국인의 순매수 유인은 유효한 만큼, 지수 상방 쪽으로 방향성을 열고가는 것이 적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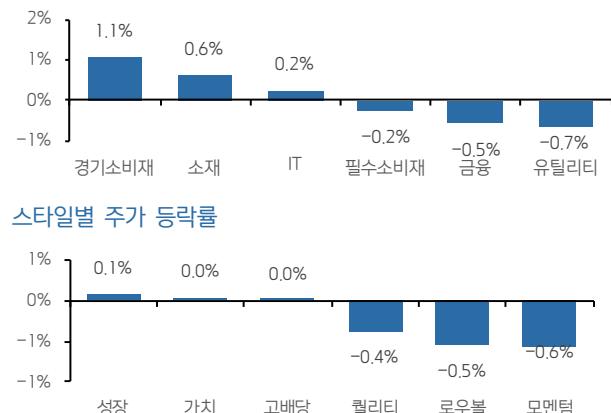
물론 최근 단숨에 2,850pt를 돌파하다 보니 속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, 미국 5월 CPI, 미중 2차 무역협상 등 대외 이벤트도 주중 치러야 하는 점이 부담. 이는 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수에 템포 조절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.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중간 조정 국면이 나오더라도, 이전보다 높아진 한국 증시 매력도(+ 잠재적인 FOMO 가능성)를 감안 시 이 같은 조정이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.

#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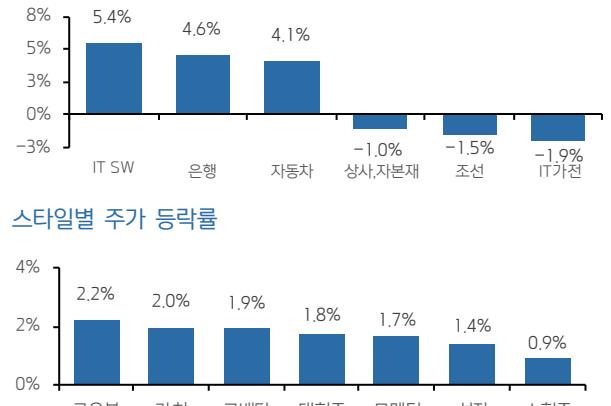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종목

| 종목      | 종가     | DTD(%) | YTD(%)  | 종목      | 종가     | DTD(%) | YTD(%)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애플      | 201.45 | -1.21% | -19.36% | GM      | 47.93  | +0.97% | -9.51%  |
| 마이크로소프트 | 472.75 | +0.5%  | +12.59% | 일라이릴리   | 773.71 | +0.5%  | +0.6%   |
| 알파벳     | 176.09 | +1.51% | -6.76%  | 월마트     | 97.45  | -0.02% | +8.42%  |
| 메타      | 694.06 | -0.52% | +18.64% | JP모건    | 266.74 | +0.38% | +12.54% |
| 아마존     | 216.98 | +1.6%  | -1.1%   | 엑손모빌    | 104.97 | +0.67% | -0.64%  |
| 테슬라     | 308.58 | +4.55% | -23.59% | 세브론     | 140.76 | +0.39% | -0.54%  |
| 엔비디아    | 142.63 | +0.64% | +6.22%  | 제너럴일렉트릭 | 97.45  | +0%    | +8.4%   |
| 브로드컴    | 244.28 | -1.07% | +5.68%  | 캐터필러    | 358.07 | +1.34% | -0.45%  |
| AMD     | 121.73 | +4.77% | +0.78%  | 보잉      | 217.51 | +3.18% | +22.89% |
| 마이크론    | 110.95 | +2.2%  | +32%    | 넥스트에라   | 71.90  | -0.4%  | +1.9%   |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## 주요 지수

| 주식시장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외환시장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지수              | 가격         | DTD(%) | YTD(%)  | 지수        | 가격       | DTD(%) | YTD(%)  |
| 코스피             | 2,855.77   | +1.55% | +19.02% | USD/KRW   | 1,354.20 | -0.17% | -8.02%  |
| 코스피200          | 382.99     | +1.71% | +20.51% | 달러 지수     | 98.94    | -0.25% | -8.8%   |
| 코스닥             | 764.21     | +1.06% | +12.68% | EUR/USD   | 1.14     | +0.22% | +10.31% |
| 코스닥150          | 1,238.60   | +1.23% | +9.63%  | USD/CNH   | 7.18     | -0.08% | -2.12%  |
| S&P500          | 6,005.88   | +0.09% | +2.11%  | USD/JPY   | 144.57   | -0.19% | -8.03%  |
| NASDAQ          | 19,591.24  | +0.31% | +1.45%  | 채권시장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다우              | 42,761.76  | +0%    | +0.51%  | 국고채 3년    | 2,395    | -1.7bp | -20bp   |
| VIX             | 17.16      | +2.33% | -1.1%   | 국고채 10년   | 2,862    | -2.8bp | -0.9bp  |
| 러셀2000          | 2,144.45   | +0.57% | -3.84%  | 미국 국채 2년  | 4,003    | -3.3bp | -23.8bp |
| 필라. 반도체         | 5,136.66   | +1.96% | +3.15%  | 미국 국채 10년 | 4,474    | -3.2bp | -9.5bp  |
| 다우 운송           | 14,976.87  | +0.67% | -5.78%  | 미국 국채 30년 | 4,940    | -2.8bp | +15.9bp |
| 상해종합            | 3,399.77   | +0.43% | +1.43%  | 독일 국채 10년 | 2,567    | -0.9bp | +20bp   |
| 항셍 H            | 8,780.13   | +1.74% | +20.44% | 원자재 시장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인도 SENSEX       | 82,445.21  | +0.31% | +5.51%  | WTI       | 65.29    | +1.1%  | -6.51%  |
| <b>유럽, ETFs</b>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브렌트유      | 67.04    | +0.86% | -10.18% |
| Eurostoxx50     | 5,421.52   | -0.16% | +10.73% | 금         | 3,354.90 | +0.25% | +23.48% |
| MSCI 전세계 지수     | 893.72     | +0.2%  | +6.23%  | 은         | 36.80    | +1.82% | +25.83% |
| MSCI DM 지수      | 3,919.17   | +0.11% | +5.7%   | 구리        | 492.50   | +1.59% | +22.31% |
| MSCI EM 지수      | 1,193.78   | +0.92% | +11%    | BDI       | 1,633.00 | +0.43% | +63.79% |
| MSCI 한국 ETF     | 66.48      | +1.39% | +30.63% | 옥수수       | 433.50   | -2.03% | -7.52%  |
| <b>디지털화폐</b>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밀         | 542.00   | -2.3%  | -4.83%  |
| 비트코인            | 108,770.00 | +2.41% | +16.07% | 대두        | 1,056.00 | -0.12% | +2.05%  |
| 이더리움            | 2,590.84   | +2.32% | -22.58% | 커피        | 359.40   | +1.11% | +19.01% |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#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6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# 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